

떠들썩한 응원 사라지고...철저한 방역 속 차분한 수능



3일 오전 광주시 서구 26지구 제11시험장인 광덕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 입실 전 발열검사를 받고 있다(왼쪽). 코로나 수능으로 인해 수험생들이 최초로 가림막 책상에서 시험을 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994년도 수능 도입 이후 사상 처음 12월에 실시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3일 광주·전남 각 시험장에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매년 학교 선생님과 후배들의 응원을 받고 고사장으로 들어가던 모습은 사라지고, 대신 고사장 앞의 수험생을 태운 차량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고사장에 들어가는 아들 딸의 뒷 모습에 눈을 떼지 못하는 부모들, 입실 마감시간에 쫓겨 경찰 오토바이를 탄 채 고사장으로 달려가는 수험생들의 모습은 여전히 연출됐다. 시험 전날 여관에서 자고 친구들과 김밥을 사먹으면서 원정 수능에 나선 엄마를 수험생들의 애잔한 도전도 되풀이 됐다.

코로나가 바꾼 수능 풍경

수험표 두고 오고 지각생도 여전 경찰 도움 받아 긴급수송 “휴~”
복통 호소에 병원 이송 시험 치러 전남 섬 수험생 152명 원정 수능

은 차량으로 광덕고 앞의 수백 미터 가량 승용차가 늘어선 등 극심한 교통혼잡이 빚어졌다. 이 때문에 학교 앞에 배치된 교통경찰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교통을 정리하느라 혼신의 힘을 쏟았다.

자녀와 함께 내린 학부모는 “코로나 때문에 아들만 내려주고 가려고 했는데 막상 수험장으로 향한 아들을 보니 덩달아 내리게 됐다”면서 “올해 코로나가 터지면서 혼자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 힘들어했는데,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바꾼 ‘수능 풍경’=3일 오전 6시 30분 수능 고사장인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덕고등학교 앞의 수험생을 태운 차들이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잇달아 도착했다.

마스크를 쓴 수험생 아들이 차에서 내려 길 건너 교문으로 향하자 운전선 장문을 내린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화이팅’이라는 말을 건넸다. 또 다른 학부모도 수험생을 내려주며 ‘부담 갖지 말고 해. 집에서 기다릴게’라고 응원하기도 했다.

매년 학교 교사들과 후배들이 수험생들의 수능 고득점을 응원하기 위해 음료수·간식 등을 마련해 놓고 응원을 하는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광주시교육청이 시험장 앞 응원을 금지하고, 학부모들에게도 교문 앞에서 대기하지 말라고 당부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수험생은 차량을 이용해 고사장을 찾았다. 차량에서 내리면서 가족과 짧게 포옹을 한 뒤 조용히 시험을 보러 들어가는 모습이 대부분이었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줄지어진 차량 행렬 때문에 수험생의 뒷 모습을 바라볼 겨를도 없이 곧바로 차량에 탑승해 귀가하기 바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험생이 가장 몰렸던 오전 7시 30분 전후로는 자녀를 시험장에 데려다 주러

에 있던 경찰 오토바이는 수험생의 수험표를 서구 화정동의 고사장까지 배달해줬다.

이날 제23시험장인 상일여고에서는 시험을 보기 직전 A양이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상무병원으로 이송돼 그곳에서 시험을 치렀다.

◇올해도 ‘수능원정’은 여전=전남 섬 지역 고3 수험생들의 몫으로 나가는 1박 2일 원정수능은 올해도 되풀이 됐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원정 수능 길에 나선 전남지역 수험생은 7개 고등학교 152명이다. 학교별로는 신안 도초고 62명, 임자고 7명, 하의고 4명, 진도 조도고 14명, 여수 여남고 21명, 완도 노화고 34명, 금일고 10명 등이다.

수능 예비소집일인 지난 2일 신안 도초고 학생 16명은 오전 10시께 도초항에서 쾌속선을 타고 1시간 거리의 목포 북항으로 향했다. 도초고는 학생 대다수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이지만, 올해의 경우 수능을 앞두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면서 목포 등 육지에 집을 둔 학생을 제외한 도초도 주민 16명만 배에 몸을 실었다.

학생들은 목포 용당동의 한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이른 시간인 새벽 5시께 일어나 차 3대에 나눠 타고 시험장으로 향했다. 학생들은 엄마가 싸주는 따뜻한 도시락 대신 숙소 인근 분식집에서 김밥을 포장해 가방에 담아야만 했다.

섬마을 학생들의 원정 수능은 섬 지역에 시험장이 만들어질 경우 시험 당일 배편을 이용해 시험지를 운송·배부·회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데다, 1개 시험장에 한 학교 수험생 비율이 4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김장홍 도초고 교장은 “올해는 다행히 날씨가 좋아 쾌속선을 탈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3시간이 가까이 걸리는 농협수송선을 타야 했다”며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는 우리 학생들이 올해는 코로나 등 고교를 못하면서 학업에 많은 지장이 있었다. 어려운 여건에서 수험생활을 해온 학생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대학별 고사 60만명 이동 예상 수능 이후 방역 고삐 죄기 고심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능을 앞두고 바짝 높였던 ‘방역 긴장감’이 수능 이후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탓에 대부분 대학이 수시 전형 수능 이후로 연기해 이번 주말부터 대학별 논술고사와 면접이 치러진다.

대학별 고사에는 수능 지원자 49만 여명보다 많은 60만명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 코로나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오는 23일 수능 성적이 발표되면 내년 1월 7일부터 대학별로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이처럼 수능 이후 대학별 면접과 논술고사 등이 이어지면서, 이에 해당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앞으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당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중인 지역에서는 대학별 평가를 비대면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자기격리자에 대해서는 대학별 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권고도 했으나, 일부 대학은 자기격리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주지 않기로 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당국도 그동안 대면 접촉이나 각종 모임을 자제해오던 분위기가 이날 수능 종료와 함께 풀릴 것을 우려하며 다시금 모임 자제를 권고하고 나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랫동안 학업에 열중했던 학생들이 오래 고생했고 학업에 열중했던 만큼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다”면서 “수도권의 현재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 수능 끝난 이후에 다시 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한다든지 밀폐된 음식점에서 장시간 대화하는 활동을 최대한 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능 끝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모든 밀폐공간은 위험하다는 것을 감안해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두환 형량 가볍다” 광주지검 항소

광주지검이 전두환(89)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3일 전씨에 대한 법원 판결의 형량이 낮아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형량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양형 부당 항소를 이유로 들었다.

또 1980년 5월 27일 헬기사격 사실을 인정하

면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관련, 재판부가 피해자 관련성·인과관계를 좁게 해석한 부분이 사실 오인고 법리오해라며 항소심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세계 첫 COVID-19 휴대용 분자진단 기기·키트 개발

목포대 창업보육센터 (주)코사이언스

목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자 LINC+사업단 가족회사인 (주)코사이언스가 세계 최초로 COVID-19 감염을 현장에서 신속·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휴대용 분자진단 기기 및 키트 개발을 완료, 전남대병원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 신속 진단 방법인 항원-항체진단법은 현장에서 30분 내 진단할 수 있으나 정확도가 90% 이하로 낮다. 또한 분자진단법은 고가의 PCR 장비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도는 높으나, 특정 장소로 검체를 이동 후 숙련된 인력이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진단까지 많은 시간이 소

요되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전남대 내 유망 바이오 벤처기업인 (주)코사이언스는 최신 분자진단 기술인 등온증폭(LAMP PCR) 기술을 이용해, 세계 최초로 COVID-19를 현장에서 1시간 이내에 진단할 수 있고 민감도와 특이도가 향상된 분자진단용 신속 진단기기 및 키트를 개발했다.

이 기기 및 키트는 소형으로 어느 현장에서든 손쉽게 사용 가능하고 일반인도 10분 교육 후 다룰 수 있다. 또한 기존 기기와 비교해 20분의 1 정도 가격이며, 분자진단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도는 기존 분자진단법보다 동일 또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흥국화재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SGI서울보증 | AIG | 하나손해보험 | NH손해보험 | KOREAN | BNP PARIBAS CARDIF | CHUBB | Carrot